

韓國語 逆形成에 對한 再檢討*

曹佳憚

(仁荷大 博士課程)

要約 및 抄錄

조가역, 2021, 한국어 역형성에 대한 재검토, 어문연구, 190 : 163~192 한국어에서 역형성은 파생어가 아닌 단어를 파생어로 착각하여 어근을 단어로 분석한다는 것으로 정의되며 ‘점잔, 암잔’등이 역형성의 용례로 거론되었다. 그러나 단순히 이러한 정의로는 역형성의 모습을 면밀하게 포착하기가 어렵다고 본다. 이 글은 역형성의 정의를 보다 더 명확하게 정립하고 기존 논의에서 역형성의 용례로 다루어진 단어들을 비판적으로 살펴본다. 한국어 역형성의 정확한 용례를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역형성 과정에서 생산적인 조어 패턴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밝혔다. 어떤 단어들에 속하지 않는 단어를 그 틀에 속하는 것으로 오인하여 틀의 구조에 의해 단어 내적 구조를 재분석하는 결과 기존에 없던 단어가 생성된다. 이러한 과정은 바로 역형성이다. 지금까지 관찰된 한국어의 역형성은 주로 ‘[[X]N하다]A’ 패턴에 의해 발생한다. 이 패턴에 유추하여 고유어 어근을 가지는 ‘X하다’형 형용사를 명사에 ‘-하다’를 결합하여 만든 것으로 착각하고 이에 따라 어근 ‘X’가 명사의 용법을 획득하게 된다.

※核心語: 역형성, 조어 패턴, 재분석, 유추, ‘X하다’형 형용사, 단어틀

I. 序論

본고는 단어형성으로서의 逆形成의 개념을 명확하게 정립한 다음에 기존 논의에서 逆形成으로 언급된 용례들이 과연 逆形成으로 볼 수 있는지를 다시 검토하고 한국어 역형성에 알맞은 용례를 제시하고자 한다. 아울러 형식

* 이 논문은 韓國語文教育研究會가 개최한 제229회 학술대회에서 발표한 글을 수정·보완한 것이다. 소중한 의견을 주신 토론자 및 익명의 심사위원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린다.

적으로 逆形成과 비슷해 보이는 경우들도 같이 살펴보면 이들이 逆形成과 어떻게 구별되는지를 언급함으로써 逆形成의 정체성을 드러내고자 한다.

逆形成(back-formation)은 일반적으로 가령 화자가 영어의 ‘babysitter’를 ‘babysit+er’ 구조의 派生語로 인식하여 ‘babysit’를 따로 집어내어 단어로 쓰이는 경우를 말한다. 그러나 주로 영어에서 보이는 이러한 단어형성을 한국어 문법에서 어떻게 적용하는지에 대해 고민할 필요가 있다. 기존 논의를 보면 逆形成을 막연하게 정의하여 다른 개념들과의 혼동을 피하지 못하거나 개념을 정립하고 그 개념에 적절하지 않은 용례를 제시하여 서로 어긋나는 결과를 도출하는 경우가 종종 보이기 때문이다.

한국어에서 逆形成에 대한 관심은 일찍부터 시작하였다. 임지현(2012)에 따르면 역형성을 언급한 초기의 논의는 남기삼(1983), 하치근(1989), 이상복(1992), 송철의(1992) 등이 있다. 이들 초기 논의에 대해서는 이미 임지현(2012)에서 자세히 다룬 바가 있다.¹⁾ 임지현(2012)에서 기존 논의에서 역형성의 용례로 제시한 것들을 다시 검토하고 그 결과 ‘점잔, 얌전, 알뜰’만 역형성의 용례로 보았다. 한편, 노명희(2005: 35-36)에서 ‘강력 드라이브, 강경 태도’처럼 漢字語 語根이 ‘-하다’와의 결합이 없이 홀로 명사를 수식하는 것은 ‘강경, 강력’이 ‘강경하다, 강력하다’에서 일종의 역형성과 같은 과정을 거쳐 형성됨을 의미한다고 하였다. 일부 한자어 어근의 제한적 자립성을 逆形成과 연관시켜 보는 입장으로 이해된다. 하지만 漢字語의 特性을 고려할 때 이러한 관점이 과연 적절한지는 의심스럽다.

뒤에서 자세히 살펴보겠지만 기존 논의에서 형식적인 유사성만 주목하여 逆形成과 겹보기에 비슷한 용례를 逆形成에 포함시키는 경우가 있다. 그 결과 逆形成의 범위가 넓어지고 인접 개념과의 혼동이 생기기도 한다. 그러면 逆形成이 한국어 단어 형성 체계에서 어떤 위상을 차지하는지에 대한 언급은 보이지 않아 逆形成의 정체성은 오히려 모호해진 느낌이 없지 않다. 이러한 문제점을 바로잡기 위해 본고는 逆形成을 보다 엄격하게 정의하고 역형성과 인접 개념들을 명확하게 구별하고자 한다. 아울러 逆形成의 정확

1) 역형성과 관련하여 임지현(2012)에서 검토된 기존 논의는 남기삼(1983), 하치근(1989), 이상복(1992), 송철의(1992) 이외에 구분관(1998), 정경재(2008), 황진영(2009)도 있다.

한 용례를 확보하기 위해 기존 논의를 비판적으로 검토한 다음에 한국어에서 역형성의 정확한 용례로 볼 수 있는 단어들을 제시하고 한국어 逆形成의 特徵도 같이 언급하고자 한다.

논의의 전개는 다음과 같다. 먼저 2장에서는 기존 논의에서 逆形成을 어떻게 정의했는지를 살펴보고 미흡한 부분을 보완하여 역형성의 정의를 다시 정립하겠다. 3장에서는 기존 논의에서 逆形成으로 언급된 용례들을 部類로 나누고 이들이 과연 逆形成으로 간주될 수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4장에서는 역형성의 용례로 볼 수 있는 것들을 제시하고 다룸으로써 한국어 역형성의 특징을 탐색하겠다. 마지막 5장에서는 본고의 논의를 요약하고 정리한다.

II. 逆形成의 概念

1. 先行 研究 檢討

우선 逆形成과 관련한 몇 개의 논의에서 逆形成을 어떻게 정의하고 있는지를 살펴보자.

(1)²⁾ 가. 본래는 가지가 첨가되어 만들어진 낱말이 아닌데 그것을 가지가 덧붙여 이루어진 것으로 잘못 이해하여 가지 요소로 생각되는 부분을 제거하여서 새로운 낱말을 만드는 방법을 역성법이라 하는데, ‘점잔’은 그러한 방법으로 만들어진 것이다(이상복 1992: 59).

나. 역형성은 역성, 역파생 등이라고도 불리는데 파생어가 아닌 단어를 보고 파생어인 것으로 유추하여 어근을 분리해 내고 이를 하나의 단어로 사용하는 것이다(황진영 2009: 28).

다. 역형성은 유추를 통한 어기의 재구조화³⁾를 통해 새로운 단어를 형성하는

2) (1)은 각 논의에서 직접 인용한 것이며 밑줄은 필자가 추가한 것이다.

3) 임지현(2012: 69)은 역형성에 대한 정의에서 ‘재구조화’라는 용어를 사용하여 ‘재구조화’를 역형성의 기제로 간주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실제로 그 논의에서 ‘재구조화’와 ‘재분석’을 구별하고 기존 논의에서 제시한 역형성의 용례를 다시 검토하며 ‘재구조화’에 속한 용례

조어법을 말하며...(임지현 2012: 69).

라. 역형성은 재분석에 의하여 기존에 존재하지 않았던 단어의 형식이 새롭게 생겨나는 것을 말한다(엄상혁 2018: 198).

역형성은 단어를 형성하는 일종의 過程이고, 우리가 그 과정에서 逆形成이 작용하는 材料, 즉 입력형, 逆形成의 기제, 그리고 逆形成의 결과물, 즉 출력형을 상징함으로써 그 과정을 조명할 수 있다. 이제 선행 연구에서 구체적으로 이 3 가지 요소를 각각 어떻게 규정하였는지에 대해 살펴보겠다.

입력형에 있어서 (1가, 나)는 ‘파생어가 아닌 단어’를 역형성의 입력형으로 보고 있다. 이러한 記述를 통해서 두 가지를 알 수 있다. 첫째, 역형성의 입력형은 단어이야 한다. 둘째, 그 단어는 파생에 의해서 형성된 것이 아니어야 한다. 그렇다면 그 단어는 단일어이거나 합성어일 것이다. (1다, 라)에서는 역형성의 입력형에 대한 언급이 보이지 않으나 엄상혁(2018: 206)에서는 Haspelmath&Sims(2010: 321)의 논의를 引用하며⁴⁾ 역형성의 입력형을 ‘형태론적으로 복잡한 것’으로 상징하고 이에 대해서는 ‘형태론적인 복합 형식뿐만 아니라 복합 형식으로 誤認되는 형식을 말한다(엄상혁2018: 206).’라고 설명하였다. 逆形成의 입력형을 이렇게 상징하면 (1가, 나)에서 말하는 ‘파생어가 아닌 단어’를 포함할 수 있다.

逆形成에 작용되는 기제에 대해서는 (1가)의 ‘잘못 이해하여’라는 표현은 단어의 구조를 잘못 인식하여 분석하는 誤分析, 즉 再分析을 말하는 것으로 이해된다. (1나)에서는 ‘類推’라는 기술도 파생어인 단어에 유추하여 파생어가 아닌 단어를 파생어로 인식함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再分析으로 볼 수 있다. 그리고 (1다, 라)도 ‘유추’, ‘재분석’이라는 기술이 보인다. 즉 위의 4개의 논의에서는 역형성의 기제가 再分析이라는 점에서 의견을 같이하고 있다.⁵⁾

를 역형성에서 제외시켰다. 그러한 사실들을 보면 역형성의 정의에서 ‘재구조화’라는 용어는 오기인 가능성이 크다.

4) 인용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형태론적으로 복잡한 것으로 인식되는 긴 단어로부터 짧거나 간단한 단어가 형성되는 것(Haspelmath&Sims, 2010: 321). 밑줄은 필자가 추가한 것이다.

5) 여기서 역형성에 작용되는 재분석을 기제로 기술하고 있는데 재분석이 여러 가지 하위부류가 있고 다양한 유형의 단어형성에 참여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재분석을 역형성의 기제로

逆形成의 출력형, 즉 결과물에 대해서도 위의 논의들은 모두 단어를 형성하는 것을 역형성의 결과로 보고 있다. 다만 황진영(2009: 28)에서 ‘하나의 단어’라고 하여 그것이 과연 새로운 단어인지 분명하지 않은 반면에 엄상혁(2018: 198)에서는 ‘기존에 존재하지 않았던 새로운 단어 형식’이라고 하여 逆形成의 결과가 형식적으로 完全히 새로운 단어임을 강조하고 있다. (1)의 4개의 정의에서 논의되는 역형성의 입력형, 기제, 출력형을 圖表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입력형	기제	출력형
1가(이상복 1992)	파생어가 아닌 단어	誤分析 / 再分析	새로운 낱말
1나(황진영 2009)	파생어가 아닌 단어	類推	하나의 단어
1다(임지현 2012)	—	類推를 통한 어기의 재구조화	새로운 단어
1라(엄상혁 2018)	형태론적 복합형식과 복합형식으로 오인된 것	再分析	기존에 존재하지 않았던 단어

<표 1> 기존 논의에서 논의된 역형성의 입력형, 기제, 출력형

선행 연구를 바탕으로 逆形成이 어떠한 과정인지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도식화하여 보일 수 있다.

(2) 逆形成의 過程



<그림 1> 기존 논의에 의해 도출된 역형성의 과정

기술하는 것은 다소 적절하지 않은 면이 있다. 뒤에서도 언급하겠지만 역형성은 반드시 재분석을 수반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재분석은 역형성에 있어 필수적인 절차로 이해하는 것이 가장 타당해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논의의 편의를 위해 ‘기제’라는 기술을 사용하고자 한다.

하지만 逆形成에 대한 이러한 설명은 여전히 모호성을 가진 것으로 보인다. 기존 논의 중 특히 황진영(2009)과 엄상혁(2018)에서는 실제로 제시하는 역형성의 용례가 각 논의에서의 역형성 정의와 부합하지 않은 경우가 보이는데 이러한 문제를 야기하는 것은 역형성을 면밀하게 규정하지 못하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된다.⁶⁾ 기존 논의에서 보인 이러한 미흡한 점을 보완하며 역형성의 정의를 보다 더 정확하게 정립하고자 한다.

2. 逆形成의 概念 再定立

逆形成의 개념에 대해서 본고는 선행 연구를 토대로 역형성의 입력형, 작용되는 기제, 그리고 출력형 세 가지 측면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이해를 돕기 위해 우선 영어에서 逆形成으로 다루어진 대표적인 예를 제시한다.

(3) 가. edit, babysit, typewrite

나. editor, babysitter, typewriter

영어에서 동사에 派生接尾辭 ‘-er’를 붙여 ‘무엇을 (습관으로)하는 사람’의 의미를 가지는 行爲主 명사를 만드는 ‘[[X]v[er]_{suf}]N’ 패턴이 활발히 사용된다. 그러나 (3)은 이와 반대가 된다. (3가)는 기존에 존재하지 않았던 것이며, 이들은 외형상 ‘or/er’를 가지는 (3나)의 명사들로부터 만들어진 것이다. 즉 話者が (3나)의 단어들을 보고 이들이 ‘[[X]v[er]_{suf}]N’ 패턴에 속하지 않음에도 그 패턴에 이끌려 이들을 ‘edit-or, babysitt-er, typewrit-er’로 분석하여 ‘er’의 앞의 부분을 동사로 인식하고 사용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서 단어를 잘못 인식하게 하여 이어서 역형성을 誘發하는 어떤 패턴이 존재해야 함을 알 수 있다. (3)의 경우 그 패턴은 바로 ‘[[X]v[er]_{suf}]N’ 패턴이다. 이러한 패턴을 逆形成의 大前提로 볼 수 있다. 전제 패턴이 높은 生産性을 가질수록 화자가 그 패턴에 대해 강한 인식을 가질 수 있고 다른 단어를 그 패턴에 유추할 가능

6) 황진영(2009)에서는 단어 형성에만 참여하는 ‘-돌이’를 역형성의 출력형으로 보고 있고 엄상혁(2018)에서는 ‘세상에서 제일’과 같은 통사 구성을 역형성의 입력형으로 간주하고 있다.

성도 높아진다. 패턴의 생산성을 좌우하는 요인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일반적으로 패턴의 구성원 하나가 형태와 의미적으로 고정되어 있는 경우 해당 패턴은 안전성을 유지하며 단어를 활발하게 생성한다. (3)의 역형성에 관여된 ‘[[X]v[er]_{suf}]N’ 패턴을 보아도 ‘-er’가 고정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⁷⁾

逆形成의 입력형도 전제 패턴과 긴밀한 관계에 있다. (3)의 역형성의 입력형이 되는 ‘editor’와 ‘babysitter’등은 원래 ‘[[X]v[er]_{suf}]N’ 패턴에 의해 형성된 것이 아니다.⁸⁾ 그러나 화자가 이 단어들을 보고 ‘[[X]v[er]_{suf}]N’에 속하는 것, 즉 그 패턴에 의해 만들어진 것으로 착각한다. 그러한 착각을 초래하는 원인은 두 가지가 있다. 첫째, 이들이 音節 마지막에 ‘or/er’를 가지고 있어 형태적으로 ‘[[X]v[er]_{suf}]N’ 패턴에 속한 단어들, 예를 들어 ‘actor’, ‘dancer’등과 닮아 있다. 둘째, ‘editor’, ‘babysitter’가 명사로서 ‘편집을 하는/아이를 돌보는 사람’의 의미를 가진다. 이는 의미적으로 ‘무엇을 (습관적으로) 하는 사람’을 뜻하는 ‘[[X]v[er]_{suf}]N’ 패턴의 의미와 부합하고 품사 범주 상으로도 모두 명사라는 점에서 일치한다. 역형성의 입력형과 패턴의 관련성을 살펴봄으로써 입력형을 다음과 같이 상징할 수 있다. 逆形成의 입력형은 역형성을 유발하는 패턴에 속하지 않으나 형태 및 의미적으로 그 패턴에 속하는 단어와 많은 유사성을 보인 단어이다.

‘[[X]v[er]_{suf}]N’ 패턴에 속하지 않는 ‘editor’를 그 패턴에 속하는 것으로 ‘잘못’ 인식하여 이에 따라 그 패턴에 의해 ‘editor’를 ‘edit-or’를 분석하는 것은 여기서 말하는 再分析이다. 엄밀히 말하면 이러한 재분석은 두 절차를 포함한다. 하나는 패턴에 속하지 않는 단어를 패턴에 속하는 것으로 錯覺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그러한 착각에 의해 해당 단어의 내적 구조를 본래와 다르게 분석하는 것이다. 전자는 역형성에 있어 필수적이고 결정적인 작용을 하는데 후자는 전자의 副産物에 불과하다고 할 수 있다.⁹⁾ 또한 앞에서(주석 5)

7) 지금까지 관찰된 역형성의 용례에서 합성어를 입력형으로 삼아 역형성이 일어난 경우 (typewriter → typewrite)가 존재하지만 합성 패턴을 전제하여 역형성이 일어난 경우는 보이지 않았다.

8) 엄상혁(2018: 206)에 의하면 ‘editor’는 라틴어 ‘ēditor’의 차용어이다. 그러면 영어의 ‘editor’는 단일어인 것을 알 수 있다. ‘babysitter’, ‘typewriter’는 ‘baby+sitter’, ‘type+writer’와 같이 합성에 의해서 형성된 것으로 보인다.

에서도 언급하듯이 逆形成보다 재분석의 범위가 더 넓다는 사실을 감안하면 재분석을 逆形成의 기제로 기술하는 것이 엄밀한 기술로 보기 어렵지만 역형성에 있어 그러한 ‘誤認’로서의 재분석이 필수적인 조건이라는 것을 증시하여 여기서 논의의 편의 상 재분석을 逆形成의 기제로 기술하기로 한다. 다만 재분석은 역형성에만 작용하는 것도 아니며 역형성의 중간 과정도 아님을 유의할 필요가 있다.

전제 패턴과 연관 지어 逆形成의 출력형을 살펴보자. 위 (3가)는 역형성의 출력형이 되는 단어들인데, 이들은 (3)의 역형성을 유발하는 패턴인 ‘[[X]v[er]suf]N’ 중의 ‘[X]v’, 즉 패턴의 變數에 해당한다. ‘edit’의 예를 들어 설명하자면 다음과 같다. (4가)는 ‘[[X]v[er]suf]N’ 패턴에 이끌려 화자의 인식 속에서 ‘editor’의 형성에 대한 誤認이고 (4나)는 그러한 誤認을 바탕으로 ‘edit’라는 동사를 逆形成하는 과정이다. 출력형인 ‘edit’가 동사라는 점에서 패턴의 ‘[X]v’와 품사 범주 상 일치한다. 이를 통해서 逆形成의 출력형이 그의 大前提인 패턴과 긴밀하게 연관된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4) 가. *edit + er → editor, [[edit]or]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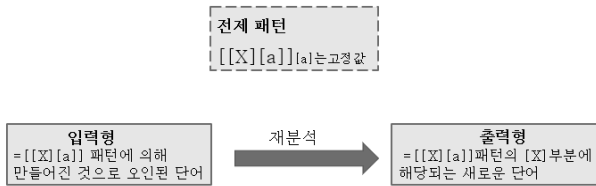
나. editor - er → edit, [edit]v

以上을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다. 逆形成은 일반적으로 어떤 생산적인 조어 패턴에 이끌려 발생한다. 역형성의 입력형은 그 패턴에 속하지 않으나, 형태와 의미의 면에서 패턴의 속하는 단어와 유사함으로 인해 패턴에 속하는 것으로 誤認된 단어이다. 역형성의 출력형은 그 패턴의 變數 ‘[X]’에 해당되는

9) 역형성의 과정에서 단어 내부 경계를 달리 분석하는 재분석은 전제 패턴의 구조와 입력 단어의 구조에 따라 일어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영어 역형성의 경우 패턴의 구조는 [[V]er]이고 입력 단어 가령 ‘editor, typewriter’의 구조는 각각 [editor] [[type][writer]]이다. 전제 패턴의 구조가 입력 단어의 구조에 작용함에 따라 [editor]를 [edit]or로, [[type][writer]]를 [[typewrite](e)r]로 분석하게 되는데 이는 입력 단어의 본래의 구조와 다르게 분석하는 재분석이 발생하는 경우이다. 한편, 뒤에서 詳述하겠지만 한국어 역형성의 전제 패턴의 구조는 [[N]하다]이고 입력 단어의 구조는 [R하다]인데 양자가 접미사 ‘-하다’를 공유하고 있다. 따라서 패턴의 구조가 입력 단어의 구조에 작용하여, 즉 [R하다]를 [[N]하다]로 분석할 때 어근을 명사로 인식하는 재분석이 일어나지만 입력 단어 내부 원래 ‘-하다’를 가지고 있어 단어 내부 경계의 변동은 발생하지 않는다.

단어이다. 그리고 패턴에 속하지 않는 단어를 패턴에 속하는 것으로 오인하여 그 패턴에 의해 해당 단어를 다시 분석하는 것은 재분석이다. 이러한 논의를 바탕으로 逆形成의 과정을 도식화한 (2)를 다음과 같이 수정할 수 있다.

(2)' 逆形成의 過程¹⁰⁾



<그림 2> 본고에서 상정하는 역형성의 과정

逆形成의 정의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역형성은 어떤 생산적인 조어 패턴의 영향으로 그 패턴 안의 단어와 形態·意味적으로 유사한 단어를 그 패턴에 의해 만들어진 것으로 오인하여 해당 단어의 내적 구조를 再分析하고 단어의 일부(보통 어근)를 단어로 인식함으로써 새로운 단어를 만들어내는 과정이다. 이러한 정의는 (1가)와 가장 유사해 보인다. 다만 여기서 逆形成이 패턴을 전제해야 하는 점을 밝히고 逆形成의 입력형과 출력형이 전제 패턴과 어떻게 연관되는지를 설명함으로써 逆形成의 정체성을 보다 명확하게 드러낸다고 할 수 있다.

영어의 逆形成 용례에 의해 얻어낸 위의 역형성의 정의가 한국어의 逆形成과 부합하는지에 대해서 ‘점잔’이 逆形成된 과정을 살펴봄으로써 검토하겠다. ‘점잔’은 기존 논의에서 역형성의 대표적인 예로 간주된다.¹¹⁾ 임지현(2012: 70)에 따르면 話者가 ‘점잔다’를 ‘*점잔하다’의 준말로 인식하여¹²⁾ ‘*점잔하다’

10) 전제 패턴은 역형성이 일어나기 전에 이미 존재하고 내세워져 있는 것으로서 역형성의 과정에 포함시키는 것이 적절하지 않지만 역형성을 논의할 때 빠질 수 없는 요소라는 점을 고려하여 점선으로 표시하여 (2)’에 같이 제시하기로 한다. 또한 圖式에서 재분석을 입력형과 출력형 중간에 놓여 있어 중간 과정처럼 보이지만 위에서 밝힌 듯이 이는 단순히 논의 편의성을 위한 처리일 뿐이며 재분석을 역형성의 중간 과정으로 보는 것은 아니다.

11) 임지현(2012)에 따르면 남기심(1983)에서 ‘점잔, 얹잔’을 역형성의 예로 제시하였다. 이 밖에 이상복(1992: 59), 엄상혁(2018: 230)에서도 역형성의 예로 ‘점잔, 얹잔’을 언급하였다.

에서 ‘점잔’을 재분석하여 ‘점잔을 떨다/빼다’ 등 구성에서 명사로 사용한다. 그렇다면 이는 명사에 접미사 ‘-하다’를 결합하여 형용사를 형성하는 ‘[[X]N하다]A’ 패턴¹³⁾에 이끌려 ‘*점잔하다’를 ‘점잔N+하다’ 구조로 誤認하여 기존에 없던 명사 ‘점잔’을 만들어 내는 것으로 보인다. 이 과정에서 ‘점잔다’의 본말로 인식된 ‘*점잔하다’가 입력형이 되는데 형태와 의미의 면에서 모두 ‘[[X]N하다]A’에 의해 만들어진 단어와 유사하다. 그리고 출력형인 ‘점잔’도 명사라는 점에서 ‘[[X]N하다]A’ 變數인 ‘[X]N’와 범주상 일치하다. ‘점잔’의 형성 과정을 살펴봄으로써 逆形成에 대한 위와 같은 설명은 영어뿐만 아니라 한국어의 대표적인 逆形成과도 부합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逆形成의 출력형은 입력형에 비해 형식적 減少가 일어난다. 결과적으로 형식적 감소가 일어나는 단어형성은 逆形成 이외에 切斷, 脫落, 混成, 縮約¹⁴⁾ 등도 있는데 이들은 어떤 조어 패턴을 前提하지 않고 再分析도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逆形成과 근본적으로 구별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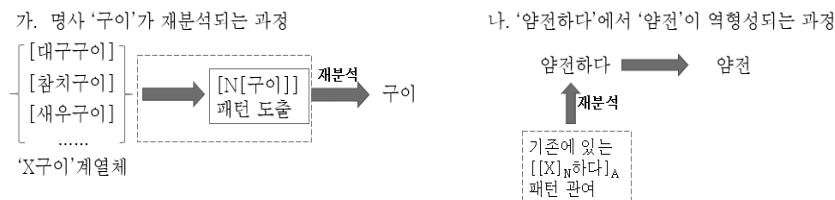
한편, 再分析은 여러 가지 하위 부류를 가지며 많은 유형의 단어형성에 관여하기 때문에 어떤 단어형성 과정에서 再分析이 관찰된다고 해서 그것이 곧 逆形成에 해당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주의할 필요가 있다. ‘구운 음식’을 뜻하는 ‘구이’의 형성을 보자. 채현식(2003: 192-193)에 따르면 명사 ‘구이’는 파생 규칙에 의해 형성된 것이 아니라 ‘대구구이, 참치구이, 고등어구이’

12) ‘점잔다’는 기원적으로 ‘젊지 아니하다’에서 융합하여 굳어진 단어다. ‘적잖다, 편잖다, 여의잖다’ 등 ‘-잖다/잖다’를 공유하는 일련의 단어가 있음에도 인종들이 ‘점잔다’를 ‘점-잖다’로 인식하지 않고 ‘*점잔하다’의 준말로 인식하는 것은 ‘점잔다’가 의미 변화가 많이 일어남에 따라 기원적 구조인 ‘젊지 아니하다’와의 유연성을 상실하기 때문인 것이라고 생각된다.

13) 명사가 접미사 ‘-하다’와 결합하여 형용사를 형성하는 경우 어기가 되는 명사는 주로 漢字語이다. 예를 들어 ‘행복(幸福)하다, 건강(健康)하다, 불행(不幸)하다’ 등 이에 해당한다. 따라서 그 패턴은 정확하게 말하자면 ‘[[한자어X]N하다]A’로 설정하는 것이 적절한데 이와 관련한 자세한 논의는 4장에서 펼치겠다.

14) 노명희(2020: 45)에 따르면 切斷語는 단어의 앞이나 뒤에 성분을 切斷되어 된 단어와 같은 의미로 쓰이는 경우이다. ‘컴퓨터’에서 ‘컴’이 절단되어 ‘컴퓨터’의 의미로 사용되는 것은 이에 해당한다. 脫落은 이은섭(2007: 104)에서 말하는 ‘하드디스크’의 뒤 부분인 ‘디스크’가 탈락하여 ‘하드’만 ‘하드디스크’의 의미로 쓰이는 경우로 볼 수 있다. 混成은 노명희(2010: 258)에서 논의하듯이 두 개의 단어에서 각각의 일부를 잘라내어 하나의 새로운 단어를 형성하는 것이다. ‘개그맨+아나운서→개그운서’같은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縮約은 최형용 외(2015: 124)에 의하면 縮約은 가령 ‘어린이집→일집, 시험→섬’처럼 단순히 음성적으로 축약된 경우와 ‘여자 사람 친구→여사친’처럼 구성의 첫 음절만 따서 단어를 형성하는 경우가 있다.

등 [X구이] 형태를 가지는 수많은 단어들의 계열관계로부터 재분석되어 형성된 것이다.¹⁵⁾ ‘구이’가 재분석되는 과정과 ‘암전’이 逆形成되는 과정을 대조하여 다음과 같이 도식화할 수 있다.



<그림 3> ‘구이’의 재분석 과정과 ‘암전’의 역형성 과정의 대조

(가)에서 보듯이 ‘구이’가 再分析되는 과정에서 ‘X구이’ 유형 단어들의 구조를 [[N[구이]]로 분석하는 한 절차의 재분석이 일어나고 이를 바탕으로 명사 ‘구이’를 분석해 낸다. (가)에서 점선으로 표시된 부분은 일차 재분석 과정이며 ‘구이’가 생성되기 위해서 걸쳐야 하는 과정이다. 여기서 (가)와 (나)에 대해 두 가지 차이점을 언급할 수 있다. 첫째 (가)의 재분석이 작용되는 대상은 형태적으로 같은 유형에 속하는 일련의 단어로부터 이루어진 계열체인 반면에 (나)의 재분석이 적용되는 대상은 개별적 단어이다. 둘째, 재분석의 결과물을 재분석에 관여된 패턴과 관련지어 관찰해 볼 때 (가)의 재분석의 결과물은 패턴의 常數에 해당된 반면에 逆形成의 재분석의 결과물은 패턴의 變數에 해당된다. 이로써 ‘구이’를 비롯한 ‘잡이, 살이’ 등은 재분석에 의해서 형성된 것이지만 그러한 재분석이 逆形成의 재분석과 다른 양상을 보이므로 이들은 역형성과 구별됨을 확인할 수 있다.

15) 채현식(2003)을 참고하여 ‘구이’의 형성을 좀 더 자세히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X구이] 유형의 단어들이 처음에 어떤 과정을 거쳐서 형성되는지가 상관없이 이들이 言衆의 語彙部에 들어가는 동시에 [구이]를 공유하고 있는 까닭으로 하나의 어휘항목으로 받아들여지게 되며 계열체를 이룬다. 그러한 계열체로부터 대상 단어들의 구조를 [[N[구이]]로 재분석하게 되는 데 ‘구이’가 바로 여기서 명사로 再分析되는 것이다.

III. 既存 論議에 對한 批判的 再檢討

이 장에서는 몇 개의 기존 논의에서 逆形成으로 언급된 용례들을 다시 검토하여 이들이 과연 逆形成으로 볼 수 있는지, 逆形成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그들의 형성에 대해서 어떠한 설명을 시도할 수 있을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여기서 검토할 용례는 주로 노명희(2005)에서 逆形成과 관련하여 언급된 漢字語 語根 부류와 황진영(2009), 엄상혁(2018)에서 逆形成의 용례로 제시된 것들이다.¹⁶⁾ 해당 용례들이 기존 논의에서 역형성과 관련하여 어떻게 다루어졌는지에 따라 이들을 세 개의 部類로 나눌 수 있다.

1. ‘X하다’로부터의 逆形成

이 부류에서는 한자어 어근이 참여된 ‘X하다’형 단어에서 ‘X’가 독립된 용법을 획득함을 역형성으로 다룬 경우를 검토한다. 다음 (5)은 노명희(2005: 35-36)에서 逆形成과 관련해서 논의된 경우로서 서론에서 이미 언급한 바가 있다.

(5)¹⁷⁾ 가. 강력(強力), 강경(強硬), 대등(對等), 과다(過多), 긴급(緊急), 정밀(精密), 불온(不穩), 부실(不實), 영세(零細)

나. 강력 드라이브, 강경 태도, 대등 관계, 과다 지방, 긴급 사태, 정밀 구성, 불온 서적, 부실 기업, 영세 기업¹⁸⁾

16) 남가삼(1983), 하치근(1989), 이상복(1992), 송철의(1992), 구본관(1998), 정경재(2008) 등 역형성과 관련된 기존 논의들에서 언급된 역형성의 용례에 대한 검토는 임지현(2012)을 참고할 수 있다.

17) (5)의 예시는 노명희(2005: 35)에서 가져온 것이다.

18) 정경재(2008: 28-29)에 따르면 ‘영세 기업’은 일본어 표현(零細企業)을 직역하여 한국어에서 사용된 것이다. ‘零細’가 직접 명사 ‘企業’을 수식하는 것은 한자어가 漢文에서의 용법 때문인 것으로 파악하였다. 즉 ‘영세 기업’에서 후행 명사 ‘기업’은 애초부터 ‘영세한’이 아닌 ‘영세’의 수식을 받았다는 것이다. 이외에 ‘強力, 強硬, 精密, 不穩’도 중국어와 일본어에서 직접 후행 명사를 수식하는데 이들이 일본어를 번역하는 과정에서 한국어로 유입되며 한국어에서도 동일한 구성(예: 강경 태도)으로 기능하게 된 것으로 보고 있다. 그렇다면 이들이 ‘X하다’구성에서 역형성을 통해 명사의 용법을 획득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 더욱 명확해

(5가)의 것들은 노명희(2005)에서 强活性語根¹⁹⁾으로 간주된다. 이들은 원래 한국어 문법체계에서 자립적으로 쓰일 수 없고 주로 ‘-하다’와 결합하여 형용사를 만들었다. 그러나 이들은 (5나)에서 제시한 것처럼 ‘-하다’와 결합하지 않고 홀로 명사를 수식하는 용법을 보인다. 이에 대해 노명희(2005)에서는 ‘명사성 성격의 어근이 ‘강력하다’에서 일종의 逆形成과 같은 과정을 거쳐 형성된 것임을 의미한다(노명희 2005: 36)’고 설명하였다. (5가)의 것들을 逆形成으로 결론짓는 것은 아니지만, 한자어에서 보이는 이러한 현상을 逆形成과 연관시켜 바라보고 있는 듯하다. 그러나 과연 ‘강력하다, 강경하다’에서 逆形成을 통해 명사 ‘강력, 강경’이 형성된 것으로 간주할 수 있는가?

이 문제를 풀기 위해 (5가)의 이들이 漢字語로서 지니는 특성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漢字가 뜻글자라는 특성 때문에 한자어들은 의미가 透明하여 화자에게 선명하게 잘 인식된다. 그리하여 대부분 한자어는 그것이 한국어의 문법 체계에서 독립된 단어인지 의존적 형식인지와 상관없이 어휘적 의미만 가지는 경우라면 한국어에서 언제나 독립적으로 쓰일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父, 母’처럼 한국어에서 일반적으로 단어 내부에만 나타나고 자립성이 없는 形態素들이 履歷書 같은 문서에서 제한적으로나마 독립적인 쓰임을 보인다는 것은 한자어의 이러한 특성을 잘 드러낸다.

한자어인 ‘강력, 강경’도 어휘적 의미를 지니는 한자어로서 이런 성질을 가지고 있다. ‘강력, 강경’은 원래 한문에서 ‘-하다’와 결합하지 않고 그 자체로, 즉 아무런 어휘적 변형을 거치지 않고 뒤에 오는 명사를 수식할 수 있었다. 한국어 문법에 유입되며 이들이 ‘-하다’와 결합하여야 형용사로 기능할 수 있게 되지만 이때의 ‘-하다’는 단지 ‘강력, 강경’에 서술성을 부여해 주는 요소인 것으로 ‘강력하다, 강경하다’의 意味 中心部는 여전히 ‘강력, 강경’이다. 의미가 투명한 ‘강경, 강력’도 다른 대부분의 한자어와 마찬가지로 독립

진다.

19) 노명희(2005: 32-33)에 따르면 한자어 활성어근은 화자들이 한 단위로 인식하여 단어형성이나 문자 구성에 참여할 수 있는 어근이다. 이 중에 강활성어근은 한국어 단어 형성에 활발히 참여하는 2음절 어근으로 주로 명사 앞에 수식 기능을 하며 한국어에서 기능 단위로서의 지위를 갖지만 자립적으로 쓰일 수 없다는 의존형식이라는 점에 주목하여 어근의 일종으로 다룬다.

적으로 쓰이는 가능성을 가진 채 (5나)와 같은 제한적 환경에서 명사를 수식할 수 있다. 앞에서 제기된 ‘강력, 강경’이 ‘강력하다, 강경하다’로부터 역형성을 통해 명사의 용법을 획득한 것이냐의 질문은 ‘강력, 강경’이 (5나)같은 환경에서 명사로 쓰이기 위해 역형성을 거칠 필요가 있느냐의 질문으로 바꾸는 것이 더 타당한지도 모른다. 우리는 꼭 그럴 필요가 없다고 본다. 위에서 논의한 것처럼 (5나)의 ‘강력, 강경’ 등이 홀로 명사로 수식하는 것은 이들이 한자어로서 독립적으로 쓰일 수 있는 가능성으로도 충분히 설명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X]_N하다]_A] 패턴에 이끌려 어근이 명사로 역형성 된다는 설명은 다소 비경제적이라고 할 수 있다.

(5가)의 한자어들은 직접 명사를 수식한다는 점에서 명사로서의 독립성을 보이지만 조사 결합에 있어 심한 제약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는 이들을 온전한 명사로 보기 어렵다. 김영옥(1994)에서 조사나 어미를 두루 갖추지 못하는 이른바 不完全系列을 다루며 (5가)처럼 관형적 쓰임에만 제한되는 형식들을 관형명사로 보았다. 본고도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여 ‘강력, 강경’처럼 한자어로서 그 자체로 명사성을 지니지만 조사와 자유롭게 결합할 수 없는 (5가)와 같은 것들을 불완전계열에 속하는 명사로 보고자 한다.²⁰⁾

2. 切斷에 의한 逆形成

이 부류에서는 기존 논의에서 절단에 의해 형성된 형식을 逆形成으로 간주한 경우를 검토한다. 다음 (6), (7)는 엄상혁(2018)에서 각각 합성어와 구의 절단으로 인해 逆形成된 용례로 제시되었다.

20) 이러한 주장과 같이하는 논의로 이선웅(2000)도 들 수 있다. 이선웅(2000: 45-46)에서 명사를 수식하는 쓰임만 보이는 한자어들이 의미의 透明性이 높기 때문에 單語性이 강하게 느껴지지만 전형적인 명사로 간주하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하여 이들을 特殊 部類의 명사(관형명사)로 처리하였다. 그리고 이들이 한국어에서 명사를 수식하는 기능을 하는 것은 漢文의 영향 때문인 것으로 파악하였다. 다만 김영옥(1994)에서 이러한 관형명사가 [한자어+하다] 구성에서 파생된 것으로 보는 반면 이선웅(2000)과 본고는 해당 한자어들에 내재되는, 명사로 쓰일 가능성에 주목한다.

(6) 가. 짜장면 → 짜장

나. 입술에 묻은 짜장을 씻어내고, 거기에 루주를 덧칠하면서 박양이, “오늘밤에 우리 집으로 가자.”하고 말했다.(한승원(1994), 『포구』, 장락.)²¹⁾

(7) 가. 세상에서 제일 → 세상

나. 세상 좋은 물건/그는 세상 편한 사람이다.²²⁾

(6나)에서 보듯이 ‘짜장’은 ‘짜장 소스’의 뜻을 가지며 쓰이기도 한다. 이러한 ‘짜장’은 엄상혁(2018: 234-335)에서 합성어 ‘짜장면’으로부터 역형성된 것으로 간주된다. 즉 화자가 ‘짜장면’을 ‘짜장+면’으로 분석하여 ‘짜장 소스’를 의미하는 ‘짜장’이라는 단어를 만들었다고 본 것이다. 그러나 문제는 ‘짜장면’을 합성어로 보는 것과 ‘짜장’을 역형성으로 보는 것이 서로 모순이 된다는 점이다. ‘짜장면’을 합성어로 본다면 ‘짜장’과 ‘면’을 결합하여 ‘짜장면’이라는 단어를 만들었음을 인정하는 것인데 이러한 관점에 따르면 ‘짜장’은 기존에 이미 존재하는 요소이어야 한다. 그러므로 ‘짜장’을 역형성의 용례로 다루기에는 적절하다고 하기 어렵다. ‘짜장면’은 볶은 춘장에 국수를 비벼 먹는 음식을 나타내는 단어임을 고려할 때 기존에 ‘춘장’ 또는 ‘소스’를 의미하는 ‘짜장’과 ‘국수’를 의미하는 ‘면’을 결합하여 ‘짜장면’을 형성한다고 보는 것이 마땅하다. 그래서 ‘짜장’은 ‘짜장면’을 구성하는 요소로서 기존에 있는 어휘이며 역형성과 무관하다고 할 수 있다.²³⁾

(7)의 ‘세상’은 엄상혁(2018: 236-237)에서 句의 逆形成으로 다루어진다. 즉 (7나)에서 쓰이는 부사 ‘세상’을 ‘세상에서 제일’이라는 구성에서 切斷을

21) (6나)는 엄상혁(2018: 235)에서 가져온 것이다.

22) (7나)는 엄상혁(2018: 236)에서 가져온 것이다.

23) 중국어의 음역어인 ‘짜장면’에 대해서는 한국어 화자와 중국어 화자 사이에 인식의 차이가 있는 듯하다. 중국어 화자의 관점에서는 ‘짜장면(炸醬麵)’은 기존에 있는 단어 ‘짜장(炸醬)’에 ‘면(麵)’을 결합하여 만든 것이다. 이와 비교하여 한국어 화자의 관점에서는 ‘짜장’이라는 단어가 원래 어휘부에 존재하지 않았고 ‘짜장면’이라는 단어를 접하면서부터 ‘짜장’을 인식하게 된 것이다. 이러한 경우 ‘짜장’은 ‘[[X]_N면]’ 패턴에 유추되어 ‘짜장면’으로부터 역형성된 가능성도 없지 않다. 본고는 일단 ‘짜장면’의 형성 과정, 즉 ‘짜장면’이라는 음식명을 만든 사람의 언어 직관을 중시하여 이를 ‘짜장(炸醬)’에 ‘면(麵)’을 붙인 합성어로 보고자 한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짜장면’을 합성어로 본 주장과 ‘짜장’을 역형성으로 본 주장이 동시에 성립할 수 없다는 것이다.

통해 逆形成된 것으로 보는 견해이다. 그러나 본고에서 역형성의 입력형을 단어에만 한정하기 때문에 ‘구의 역형성’을 인정하지 않는다. 또한 앞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切斷은 再分析을 거치지 않는다는 점에서 逆形成과 구별된다.²⁴⁾ ‘세상에서 제일’에서 ‘세상’이 나오는 것은 어떤 패턴에 이끌려 再分析을 통해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단순히 그 구성의 일부를 切斷하는 것이므로 逆形成으로 간주하기 어렵다.

그렇다면 부사로 쓰인 ‘세상’의 형성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이 문제에 대해서 두 가지 설명을 제시할 수 있다. 하나는 명사 ‘세상’에서 轉成된다는 설명이고 다른 하나는 기존 논의에서 다루어진 ‘意味 쏠림 現象’이나 ‘意味 凝縮’으로 설명하는 것이다. 첫 번째 설명은 엄상혁(2018: 237)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명사 ‘세상’과 부사 ‘세상’ 사이에 意味적 有緣性이 낮다는 점에서 문제가 된다. 여기서 우리는 두 번째 설명에 주목하고자 한다. 다음 (7)’에서 제시된 ‘짜가지’와 ‘주책’은 구 구성에서 切斷되어 구성 전체의 의미로 쓰인다는 점에서 부사 ‘세상’과 비슷한 양상을 보인다.

(7) 가. 짜가지가 없다 → 짜가지

가. 개 완전 짜가지잖아. / 왜 내 말투보고 짜가지라고 그러는 거야?

나. 주책이 없다 → 주책

나. 그 사람이 참 주책이다. / 그 사람이 주책이 이만저만이 아니야.

이러한 현상에 대해서 박진호(2007: 212-213)에서는 구성 전체의 의미가 일부의 구성 요소에 쏠리게 되어 그 구성 요소만으로 구성 전체의 의미를 나타내는 ‘의미 쏠림 現象’으로 설명하였다. 한편, 이선영·정희창(2019)에서는 구성 전체의 의미로 쓰이는 ‘짜가지’, ‘주책’은 구성 안에 있는 ‘짜가지’, ‘주책’과 별개의 단어이며 前者를 구의 의미를 凝縮하는 切斷語로 간주하고 이러한 현상을 意味 凝縮으로 설명하였다. 특히 이선영·정희창(2019: 284-

24) 엄상혁(2018)에서도 절단과 역형성의 차이를 논의할 때 ‘절단은 재분석이 필수적이지 않지만 역형성은 재분석이 필수적이다(엄상혁 2018: 209)’라고 하여 역형성은 재분석을 전제하는 것이라는 점을 인정하고 있다.

285)에서 부사 ‘세상’이 ‘세상없이’와 의미가 유사함을 지적하며 부사 ‘세상’을 ‘세상없이’의 의미가 응축된 切斷語로 보았다. 요컨대 부사 ‘세상’은 형태적인 절단을 거쳐 만들어진 것이며 원 구성 전체의 의미를 가진다는 점에서 意味 凝縮으로 설명될 수 있다.

엄상혁(2018)에서 절단형을 역형성으로 다룬 용례로는 부사로 쓰인 ‘완전’도 들 수 있다.

(8) 가. 완전히 → 완전

나. 그 사람 완전 내 스타일이야!²⁵⁾

엄상혁(2018: 230-234)에 따르면 부사 ‘완전’은 명사 ‘완전’에서 轉成되었기 보다 부사 ‘완전히’에서 切斷하여 逆形成된 가능성이 더 크다. 그러나 ‘완전히’에서 절단되어 ‘완전’이 형성된 것이라면 이는 切斷이나 ‘-히’ 省略으로 다뤄야 하는 것으로 逆形成에 해당하지 않는다. 앞에서 언급했듯이 逆形成에는 어떠한 조어 패턴을 전제한 再分析이 관여되어야 하는 반면에 切斷이나 省略은 그러한 再分析과 무관하기 때문이다. ‘완전’이 독립적으로 부사의 기능을 할 수 있는 것은 앞에서 살펴본 (5)의 ‘강경, 강력’ 등의 경우와 같은 맥락에서 다룰 수 있는 문제로 본다. ‘완전’이 한자어로서 그 의미가 鮮明함에 따라 제한적 自立性이 부여된다. 또한 명사 ‘완전’은 주로 명사를 수식하는 기능을 하는데 수식을 받는 명사가 대부분 ‘개방, 타결, 강추’ 등처럼 서술성 명사에 해당한다. 이러한 사실도 ‘완전’이 독립적으로 용언을 수식하게 되는 데에 기여한다는 가능성이 있다.

3. 接辭로부터의 逆形成

여기서 황진영(2009)에서 逆形成의 예로 다룬 ‘-돌이’를 살펴보겠다.

(9) 가. 갑돌이 → 돌이

25) (8나)는 엄상혁(2018: 231)에서 가져온 예문이다.

나. 꽃돌이, 척돌이, 죽돌이²⁶⁾

황진영(2009: 28)에서 ‘-돌이’를 ‘갑돌이’에서 逆形成되어 (9나)와 같은 混成語의 형성에 참여하는 ‘혼성어형성전용요소’로 간주하였다. 이에 대해 임지현(2012: 74)에서 ‘-돌’은 ‘갑돌이’ 형성 이전에도 이미 人名 派生 接辭로 존재하고 ‘갑돌이’는 인물 이름을 표시하기 위해 대명사적 기능을 수행하는 ‘갑(甲)’에 ‘-돌이’가 결합하여 만들어진 것으로 보는 것이 적절하고, 이에 따라 ‘-돌이’가 ‘갑돌이’에서 역형성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지적하였다. 본고도 ‘-돌이’를 逆形成의 용례로 삼지 않는다는 주장이다. 다만 그 이유는 임지현(2012)과 다르다.

본고에서 상정하는 逆形成은 새로운 단어를 만들어 내는 일종의 단어형성 방법으로서 그 결과물, 즉 출력형은 독립적인 단어로서의 지위를 가져야 한다. 그러나 ‘-돌이’는 단어형성에만 참여하고 독립적으로 統辭 構成에 참여하지 못한다는 점에서 단어로 보기 어려우며 逆形成의 용례가 될 수 없다. 황진영(2009: 28)에서도 이러한 ‘-돌이’를 ‘혼성어형성전용요소’로 간주하며 ‘-돌이’가 자립적인 단어로서의 지위를 갖추지 못한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여기서 주로 단어형성에 참여하는 ‘-돌이’의 형성에 대해 推測해 보고자 한다. (9나) 같은 단어에 참여한 ‘-돌이’는 ‘남자’를 뜻하는데 이러한 의미는 ‘갑돌이’에서 나온 것으로 보인다. ‘갑돌이’에서 ‘-돌이’를 분석해 내는 것은 ‘갑순이’와 관련이 있을 것이다. ‘갑돌이’와 ‘갑순이’가 ‘갑(甲)’을 공유하며 각각 남자 인물과 여자 인물의 이름을 표시함으로 화자가 자연스럽게 두 단어에서의 [돌이]와 [순이]를 意味 辨別을 담당하는 형태로 인식한다.²⁷⁾ 이러한

26) (9나)에서 제시된 단어들은 황진영(2009: 28)에서 가져온 것이다.

27) 임지현(2012: 74)의 주장대로 ‘갑돌이’가 ‘갑’에 人名 派生 접미사 ‘-돌이’가 결합하여 형성된 것이라면 ‘갑돌이’의 내적 구조는 [[갑-돌이]]가 될 것이다. [[갑-돌이]]를 [[갑돌이]]로 인식하여 ‘돌이’를 분석해 내는 것은 단어 내부 경계를 달리 분석하는 것으로서 재분석에 해당한다. 그러나 이러한 재분석은 역형성의 재분석과 다르다. 逆形成의 再分析은 반드시 어떤 단어들에 유추하여 발생함에 비해 ‘[[갑돌이]]’를 ‘[[갑][돌이]]’로 분석하게 된 것은 단어들에 유추한 결과가 아니라 ‘갑순이’와의 대응에서 나온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피돌이, 깨돌이, 약돌이’ 등 [N돌이] 구조를 가지는 단어들이 있지만 이들은 오히려 명사에 ‘-돌이’가 결합한

인식에 의해 ‘남자’, ‘여자’를 뜻하는 ‘-돌이’와 ‘-순이’를 재분석해 낸다고 추정해 볼 수 있다. 아래 (9)’에서 보듯이 ‘-돌이’, ‘-순이’가 같은 어기에 붙어 각각 ‘남자’, ‘여자’의 의미를 첨가해 준다. ‘-돌이’와 ‘-순이’가 이렇게 성에 있어 대립된 의미를 가지며 신어형성에 많이 참여하며 점차 접사화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을 듯하다.

(9) 가. 깨돌이, 꽃돌이, 빵돌이, 집돌이 …

나. 깨순이, 꽃순이, 빵순이, 집순이 …

이상으로 몇 개 기존 논의에서 逆形成으로 언급된 용례들을 다시 검토하여 이들이 모두 逆形成의 용례로서 적절하지 않음을 확인하였다. 다음 장에서 한국어에서 逆形成에 해당하는 용례가 어떤 것이 있는지, 그러한 용례들을 통해서 관찰된 한국어 逆形成의 특징이 무엇인지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IV. 韓國語 逆形成의 用例 및 特徵

한국어의 逆形成 용례를 제시하기 전에 우선 그러한 逆形成에 관련된 패턴에 대해 살펴볼 필요가 있다. 2장에서 ‘점잔’의 역형성을 유발하는 패턴이 ‘[[X]_N하다]_A’ 패턴이라는 것을 언급한 바가 있다. 이 패턴은 다음(10)과 같이 명사 [X]에 ‘-하다’를 결합하여 ‘X하다’형 형용사를 형성하는 조어 패턴이다.

(10) 가. [건강, 행복, 편안, 불행…]_N + ‘-하다’

나. 건강하다, 행복하다, 편안하다, 불행하다 …

여 만들어졌다는 가능성이 더 크다. 기존에 ‘-돌이’라는 접미사가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단어들에서 보이는 [돌이]도 기원적으로 ‘[[갑]돌이]’에서 나온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성이 있다.

여기서 어기 [X]에 해당된 명사들은 모두 漢字語 系列 명사다. 한자어 계열에서 명사에 ‘-하다’를 결합하여 형용사를 만드는 造語法이 있지만 한국어 고유어에는 이러한 조어법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²⁸⁾ 그렇다면 이러한 패턴이 고유어 계열 단어에도 작용할 수 있는가 하는 의문이 제기될 수도 있다. 본고는 그러한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본다. 한자어와 고유어의 區分은 언어학적인 분석에서 중요하게 여겨지기도 하지만 실제 언어 사용에서 言衆이 한자어와 고유어를 엄밀히 구별하여 인식한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이다.

(11) 가. 천량, 암치

나. 반(半)팔, 밥상(床), 책(冊)값; 삼(三)귀다

다. 해바라기적 성향, 어거지적인 느낌, 느낌적인 느낌

(11)의 예시들은 언중의 인식이 한자어와 고유어의 경계를 넘나들을 잘 보여 준다. (11가)는 기원이 ‘錢糧, 廉恥’에 둔 한자어였지만 현재 한자어란 인식이 거의 사라진 단어이다. 사전의 등재어 표기를 보면 다른 한자어의 경우 옆에 한자를 같이 표시하고 한자어임을 드러내지만 (11가)에 대해서는 한자를 따로 표시해 두지 않는다. (11나)는 한자어와 고유어를 결합하여 단어를 만드는 경우이다. 특히 신어로 쓰인 ‘삼귀다’는 ‘사귀다’의 ‘사’를 한자어 ‘四’와 연관시켜 그것을 ‘삼(三)’으로 대치하여 ‘아직 사귀는 사이가 아니지만 친하게 지내는 관계’를 의미하는 것으로 한자어와 고유어가 서로 경계되거나 구분해야 한다는 인식이 언중에게 희박하다는 사실을 잘 보여 준다. 이러한 현상은 (11다)에서 한자어 접미사 ‘-적’이 고유어 어기를 취할 수 있음을 통해서도 관찰된다.

28) 유현경(1998)과 김정남(2005)에서 제시된 ‘X하다’형 형용사 목록을 바탕으로 고유어 ‘X하다’형 형용사 173개를 검토한 결과 ‘X’가 자립 명사인 경우는 극히 드물 뿐더러 그 가운데 대부분이 ‘X하다’형 형용사로부터 역형성된 것으로 보인다. ‘부지런하다, 남짓하다’의 ‘부지런, 남짓’은 중세 한국어부터 명사로써의 지위를 가졌다.

가. 부테 세 번 付囑^후샤 브즈러는 뵤야시닐(佛이 三囑^후샤 以示勤^후야시닐 <법화 6:125>)
나. 물 혼 사발 브서 달히니 반 남죽 되어든 즈의 업게 호고(水一沙鉢煎至七分 去滓)<분문 26>

따라서 ‘[[X]_N하다]_A’ 패턴은 비록 [X] 자리에 한자어를 취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언중이 한자어와 고유어를 구별해서 인식하지 않는 경우가 많으므로 이 패턴은 한국어 ‘X하다’형 형용사에 두루 작용한다고 할 수 있다. 어떤 고유어 어근을 가지는 ‘X하다’형 형용사를 인식하는 데에 있어 ‘[[X]_N하다]_A’ 패턴에 이끌려 그것을 ‘명사(X)+하다’로 인식하여 패턴의 變數인 ‘X’를 명사로 재분석하는 것은 바로 逆形成인데 한국어에서 이러한 逆形成에 해당되는 용례는 다음과 같이 제시할 수 있다.

(12) 가. 암전, 유난, 부산

가. 점잔

나. 깔끔

다. 알뜰

‘[[X]_N하다]_A’ 패턴의 영향으로 화자가 ‘암전하다, 유난하다, 부산하다, *점잔하다, 알뜰하다, 깔끔하다’를 ‘명사+하다’의 구조로 착각하여 ‘암전, 유난, 부산, 점잔, 알뜰, 깔끔’을 명사로 인식하게 된다. 여기서 특별히 설명해야 할 것은 ‘점잔’의 逆形成 과정이다. ‘점잔’의 逆形成 과정에서 입력형이 된 것은 ‘*점잔하다’이다. 그러나 그것은 사전에 등재되어 있지 않아 단어로 인정받지 않는다. 사전에 등재된 것은 ‘점잖다’인데 화자가 ‘점잖다’에 대해서는 “점잔하다”의 준말로 인식하곤 한다. 이에 따라 존재하지 않는 ‘*점잔하다’를 ‘[[X]_N하다]_A’ 패턴과 연관시켜 ‘점잔’을 명사로 재분석하게 된다. 화자가 ‘점잖다’를 ‘*점잔하다’의 준말로 간주하는 것과 관련된 논거로는 다음 3가지를 언급할 수 있다.

첫째, ‘점잖다’가 변화로 인해 그의 기원적 구성인 ‘젊지 아니하다’와의 有緣性이 상실되었다. 형태와 의미가 변화된 까닭에 언중이 ‘점잖다’의 내적 구조에 대해 더 이상 인식할 수 없고 ‘점잖다’를 ‘*점잔하다’의 준말로 착각한다. 둘째, 한국어에서 ‘X하-’ 구성을 가지는 단어 중 음절 ‘하’의 모음이 탈락하는 경우가 있다. 예컨대 ‘가능케’, ‘불안케’는 ‘가능하-, 불안하-’가 부사형 어미 ‘-게’와 결합하는 과정에서 ‘하’의 모음이 탈락함에 따라 유기음화가 일어난 결과이다.²⁹⁾ 이러한 현상을 고려하면 ‘점잖다’를 ‘*점잔하다’의 준말로 인

식한다는 것은 예외적이나 부자연스러운 일이 아니다. 마지막은 (13)에서 제시한 것처럼 실제 언어 사용에서 ‘*점잔하다’가 보인다는 것이다. 이는 언중이 ‘*점잔하다’라는 표현이 존재한 것으로 인식함을 의미한다.

- (13) 점잔하게 양복에다 증절모까지 갖추어서 처신하던 그가 어느덧 그런 모습으로 변해 있었다.(『토지 16』, 박경리)
그 ‘밤손님’은 참 점잔하고 욕심이 많기도 하다.(『한국의 민속』, 김성배)
검정색 무게있고 점잔한 느낌의 가방(네이버 카페)

한편, (12)의 이들이 사용 환경에 있어 공통점이 보인다. 이들은 모두 조사와 자유롭게 결합하지 못하고 ‘알뜰’과 ‘깔끔’을 제외한 남은 것들은 거의 ‘X을 떨다/부리다/피우다’ 구성에만 쓰인다.³⁰⁾ ‘깔끔’도 ‘깔끔(을) 떨다’로 많이 사용되지만 (14)에서 보듯이 複合名詞 형성에 참여하거나 일반 통사 구성에 사용된 경우도 있다.

- (14) 가. 깔끔남, 깔끔녀, 깔끔쟁이, 깔끔이
나. 깔끔이 지나쳐 결백증이 있는 것 같다.(『표준국어대사전』)
(15) 가. 알뜰 구매, 알뜰 주부, 알뜰 살림, 알뜰 장터, 알뜰 문자족
나. 알뜰맨, 알뜰폰

‘알뜰’의 경우 ‘X을 떨다/부리다/피우다’ 구성으로 거의 사용하지 않고 주로 다른 명사를 수식하거나 복합명사 형성에 참여한다는 점에서 (12)의 다른 명사들과 비교할 때 이질적인 양상을 보인다. 이러한 사실을 통해 ‘알뜰’이 명사의 지위를 획득함에 있어 ‘N+N’ 구성도 어느 정도 기여한다는 것을 짐작

29) 인터넷 글에서 ‘점잔케’의 사용도 보인다. ‘점잔케’가 ‘점잖-+게’의 결합 과정에 유기음화가 일어난 결과일 수도 있지만 ‘가능케-가능하게, 불안케-불안하게’에 유추해 보면 언중이 ‘점잔케’의 원 형식을 ‘*점잔하게’로 인식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그렇다면 이도 역시 언중이 ‘*점잔하다’에 대한 인식이 있다는 증거가 될 수 있다.

30) 다만 ‘유난’은 서술격 조사 ‘-이-’와 결합하여 사용되는 경우가 있다. 예: ‘너 왜 오늘 따라 유난이야?’

할 수 있다. 즉 ‘알뜰’이 어느 순간부터 ‘-하다’가 없이 홀로 명사 앞에서 수식 기능을 하게 되는데 이러한 용법이 많아짐에 따라 ‘알뜰’에 대한 인식이 강화되고 언중이 점차 그것을 명사로 인식하게 된 것이다. 본고는 ‘[[X]_N하다]_A’ 패턴의 존재와 ‘알뜰’이 쓰인 ‘N+N’ 구성이 모두 ‘알뜰’의 명사 지위 획득에 관여된다고 보고자 한다. 이 두 가지 작용이 서로 분리될 수 없으며 그에 따라 명사 ‘알뜰’은 결국 ‘알뜰하다’에서 명사로 逆形成된다.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12)의 명사들은 조사와의 결합 제약을 가지며 제한된 환경에서만 사용된다. 따라서 이들은 아직 온전한 명사로 보기 어렵고 不完全 系列 명사로 간주하는 것이 타당하다. 특히 ‘알뜰’이 조사와 결합하여 쓰이는 경우가 거의 보이지 않아 (12)의 다른 명사보다 명사성이 더욱 불안정하다고 할 수 있다.

이상으로 살펴보았듯이 한국어의 逆形成은 ‘[[X]_N하다]_A’ 패턴을 前提하여 발생한다. 이는 한국어 역형성의 특징으로 언급될 수 있다. 한국어에서 이 패턴에 유추하여 일어난 역형성은 형용사를 입력형으로 삼아 명사를 형성하는데 영어에서 명사로부터 동사를 逆形成하는 것과 비교된다. 또한 영어 逆形成 과정에서 단어 내부 없는 경계를 만들어 내거나 내부 경계를 달리 분석하는 재분석이 동반되지만 한국어 逆形成에는 전제 패턴에 속하지 않는 단어를 그 패턴에 속하는 것으로 착각하는 재분석이 일어나지만 이에 따른, 단어 내부 경계를 달리 분석하는 일은 발생하지 않는다고 할 수도 있다. 한국어 역형성의 입력형이 된 ‘얌전하다, 부산하다’ 등 ‘X하다’형 형용사가 역형성 전에 ‘어근-하다’의 구조를 가졌다. 어근은 단어도 아니고 ‘얌전, 부산’등이 다른 단어에도 보이 않지만 이들 ‘-하다’와의 사이에 경계가 존재한다고 볼 여지가 있다. 이는 ‘-하다’의 높은 생산성과 관련이 있다. 즉 ‘-하다’가 수많은 단어형성에 참여하고 언중이 ‘-하다’에 대해 선명한 인식을 가지고 있어 어근과 ‘-하다’ 사이에 경계가 있다고 인식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비록 어근과 ‘-하다’ 사이에 원래 경계가 존재하고 단어의 경계를 본래와 다르게 분석하는 재분석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12)의 이들은 여전히 역형성으로 볼 수 있다. 앞에서도 논의한 바와 같이 역형성에 있어 재분석이 결정적인 작용을 하는 것은 어떤 造語 패턴에 속하지 않는 단

어를 그 패턴에 속하는 것으로 錯覺 또는 誤認하는 데에 있다. 단어 경계를 원래와 다르게 분석하는 것은 단지 이러한 ‘誤認’의 부산물로 볼 수 있을 것이다.³¹⁾ 여기서 ‘[[X]_N하다]_A’ 패턴에 유추하여 ‘얹전하다, 깔끔하다’등처럼 원래 ‘어근-하다’ 구조를 가진 단어의 구조를 ‘명사+하다’로 인식하고 ‘얹전, 깔끔’등을 명사로 재분석하는 것만으로도 그러한 ‘誤認’이 이루어진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12)의 단어들은 역형성의 용례로 다루기에 충분한 자격을 갖추고 있다.

IV. 結論

본고는 한국어의 逆形成을 다시 검토하는 것을 목표로 삼아 逆形成의 개념을 다시 정립한 다음에 한국어 逆形成에서 문제된 용례를 재검토하고 逆形成의 적절한 용례를 확보하였다. 논의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2장에서는 기존 논의에서 逆形成에 대해 어떻게 정의했는지를 검토한 다음에 전형적인 逆形成의 예를 살펴보고 逆形成은 단어형성 패턴을 前提로 하여 발생한다는 것을 확인하고 逆形成의 입력형과 출력형이 그런 전제 패턴과 어떻게 연관되는지를 밝혀냈다. 이를 바탕으로 逆形成의 정의를 다음과 같이 정립하였다. 逆形成은 어떤 生産性이 높은 패턴에 이끌려, 그 패턴에 속하지 않는 단어를 패턴에 속하는 것으로 誤認하여 그 단어의 내적 구조를 再分析하고 단어의 일부를 단어로 인식함으로써 새로운 단어를 만들어 내는 단어형성이다.

3장에서는 몇 개의 기존 논의에서 다루어진 逆形成의 용례들을 다시 검토하여 이들이 모두 역형성으로 보기 어렵다는 사실을 밝혔다. ‘X하다’형 단어가운데 한자어 ‘X’가 홀로 명사를 수식하는 기능에 대해서 이들이 한자어로서 선명한 의미를 가지며 명사로 쓰일 수 있는 가능성이 원래 內在되어 있다는 것으로 보았다. 부사 ‘세상’을 비롯한 절단형들은 재분석을 겪지 않는다는 점에서 역형성으로 보기 어렵다. 접사화 과정에 있는 ‘-돌이’는 독립적인

31) 9번 주석 참고.

단어로서의 지위를 가지지 못한다는 점에서 역시 본고의 역형성 용례에서 제외된다.

4장에서는 한국어의 逆形成에 해당되는 용례를 제시하여 살펴보았다. 그들은 모두 ‘[[X]_N하다]_A’ 패턴을 전제하여 逆形成된다. 언중이 ‘[[X]_N하다]_A’ 패턴에 이끌려 원래 ‘명사+하다’ 구조가 아닌 ‘암전하다, 점잔하다, 깔끔하다’ 등을 ‘명사+하다’ 구조로 錯覺하여 이에 따라 ‘암전, 점잔, 깔끔’ 등은 명사로 사용하게 된다. 逆形成된 명사들이 대부분 제한된 환경에서만 사용되고 조사와 자유롭게 결합하지 못한다는 점에서 不完全系列 명사에 속한다. 한국어 逆形成의 전제로 작용하는 ‘[[X]_N하다]_A’ 패턴이 그 자체로도 한국어 역형성의 特徵이 되지만 단어 경계를 원래와 다르게 분석하는 재분석이 일어나지 않는다가나 형용사로부터 명사를 역형성한다거나 등 이 패턴과 밀접하게 관련된 사항들도 한국어 逆形成의 特徵으로 볼 수 있다.

언어 체계에 존재하는 어떤 패턴에 유추하여 특정 단어에 대한 ‘잘못’ 인식으로부터 逆形成이 일어나고 그 결과 기존에 없었던 단어가 생성된다. 본고는 逆形成 과정에서 전제로서의 조어 패턴의 중요성을 강조함으로써 逆形成을 한층 더 면밀하게 바라볼 수 있었다. 또한 언어 사용자의 직관과 깊이 관련되는 類推와 再分析이 逆形成 과정에서 중요하게 작용된다는 사실도 다시 강조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유추를 기반한 단어형성의 한 유형으로 逆形成을 어떻게 더 깊이 바라볼 수 있는지, 역형성이 단어형성 체계에서 차지하는 위상 등과 같은 문제들은 향후의 연구에서 다루겠다.

<參考文獻>

- 고영근(1987), 「補充法과 不完全系列의 問題」, <語學研究> 23, 서울대학교 어학연구소, pp.505~526.
- 김영옥(1994), 불완전계열에 대한 형태론적 연구, <국어학> 24, 국어학회, pp.87~109.
- 김정남(2005), 『국어 형용사의 연구』, 역락.
- 김창섭(1996), 『국어의 단어형성과 단어구조 연구』, 태학사.

- 남기탁(2013), 新語 形成 過程과 再分析, <국어국문학> 163, 국어국문학회, pp.5~38.
- 노명희(2005), 『현대국어 한자어 연구』, 태학사.
- _____(2010), 혼성어(混成語) 형성 방식에 대한 고찰, <국어학> 58, 국어학회, pp.255~281.
- _____(2020), 「한국어의 형태론적 재분석과 의미론적 재분석」, <국어학> 95, 국어학회, pp.33~64.
- 박종호(2010), 「‘X하다’의 결합 유형에 관한 연구」, <새국어교육> 84, 한국국어교육학회, pp.321~339.
- 박진호(2007), 「의미의 쏠림 현상에 대하여」, 『국어사 연구와 자료』, 태학사, pp.211~224.
- _____(2015), 「언어에서의 전염 현상」, <언어> 40, 한국언어학회, pp.619~632.
- 송철의(1992), 『國語의 派生語形成 研究』, 태학사.
- 심재기(1987), 「한자어의 구조와 그 조어력」, <국어생활> 8, 국어연구소, pp.25~39.
- 엄상혁(2018), 「한국어의 재분석에 의한 단어형성: 어휘적 재구조화와 역형성을 중심으로」, <한국어학> 81, 한국어학회, pp.197~244.
- 유춘평(2013), 「한국어의 ‘한자어-하다’형 용언에 대한 연구」, 인하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유현경(1998), 『국어 형용사 연구』, 한국문화사.
- 이상복(1992), 「국어의 조어법 연구」, <한글> 215, 한글학회, pp.51~80.
- 이선영·정희창(2019), 「절단 현상과 의미 응축에 대하여」, <한국학연구> 52, 인하대학교 한국학연구소, pp.269~289.
- 이선웅(2000), 국어의 한자어 ‘관형명사’에 대하여, <한국문학> 26, 서울대학교 규장각 한국학연구원, pp.35~58.
- 이은섭(2007), 형식이 삭감된 단위의 형태론적 정체성, <형태론> 9-1, 형태론, pp.93~113.
- 임지현(2012), 「한국어의 특이파생법 연구」, 인하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장 나(2015), 「현대한국어 한자어 어근 파생형용사 연구」, 인하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정경재(2008), 「불완전계열의 변화 방향 고찰」, <형태론> 10-1, 형태론, pp.19~38.
- 채현식(2001), 「한자어 연결 구성에 대하여」, <형태론> 3-2, 형태론, pp.241~263.

- 채현식(2003), 『유추에 의한 복합명사 형성 연구』, 태학사.
- 최형용(2003), 「‘줄임말’과 통사적 결합어」, <국어국문학> 135, 국어국문학회, pp.191~220
- 최형용 외(2015), 『한국어 연구와 유추』, 역락.
- 황진영(2009), 「현대국어 혼성어 연구: 단어형성적 측면을 중심으로」,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Martin Haspelmath & Andrea D. Sims(2010), Understanding Morphology(2nd edition). London: Hodder Education. 오규환 외 역(2015), 『형태론의 이해』, 역락.

■ ABSTRACT

A Re-examination of Back-formation in Korean

Cao, Jia-yi

In Korean, back-formation has been defined as follows: by mistaking a word (which is not a derivative) as a derivative perceiving the root of the word as an independent word. Furthermore, “점잔” and “암전” were mentioned as examples of back-formation. However, we think that it is difficult to precisely capture the process of back-formation simply from this kind of definition. This article aims to establish the definition of back-formation more clearly and confirm the accurate examples of back-formation in Korean by critically examining some words that have been regarded as examples of back-formation in previous discussions. We found that productive word-schemas usually play an important role in the back-formation process. When a word that does not belong to a certain word-schema is mistaken for belonging to that schema, its internal structure will be reanalyzed according to that schema. As a result, a word that did not exist before can be produced. This process is called back-formation. Most of the back-formations observed in Korean language so far associate closely with the “[X]_N hada]_A” schema. Analogizing by “[X]_N hada]_A” schema, an “X-hada” type adjective, which the “X” part is Korean native root, is mistaken for being created by combining “-hada” with a noun, and as the result of this kind of mistake, the root “X” can be the used as a noun.

※ key-words: back-formation, word-schema, reanalysis, analogy, “X-hada” type adjective

<Reference>

- Bak, Jongho. 2010. "A Study on 'X-hada' by combination type", *Journal of the new Korean Education*, 84: 321-339. The Association of Korean Education.
- Chae, Hyunsik. 2001. "About the Sino-Korean Serial Construction", *Morphology*, 3-2: 241-263. Morphology.
- Chae, Hyunsik. 2003. *A study of analogical complex noun formation*. Thaeaksa.
- Choi, Hyungyong. 2003. "'Reduced words' and Syntactically Combined Words", *The Korean Language and Literature*, 135: 191-220. The Society of Korean Language and Literature.
- Choi, Hyungyong et al. 2015. *Korean study and analogy*. Youkrackbooks.
- Chung, Kyeongjae. 2008. "A study on changing-direction of defective paradigm words", *Morphology*, 10-1: 19-38. Morphology.
- Eom, Sanghyeok. 2018. "Word-formation by Reanalysis in Korean: Focusing on the Lexical restructuring and the Back-formation", *Korean Linguistics*, 81: 197-244. The Association For Korean Linguistics.
- Hwang, Jinyoung. 2009. "A Study on Blends in Modern Korean-Focused on word-formation", Master's thesis of Yonsei University.
- Im, Jihyun. 2012. "A Study on Unusual Derivation in Korean", Master's thesis of Inha University.
- Kim, Changsup. 1996. *A study on word formation and word structure in Korean*. Thaeaksa.
- Kim Jungnam. 2005. *Study of Korean adjectives*. Youkrackbooks.
- Kim Youngwook. 1994. "A Morphological Study of Defective Paradigms", *Journal of Korean Linguistics*, Vol.24: 87-109. The Society of Korean Linguistics
- Ko, Yongkun. 1987. "The Problem of Suppletion and Defective Paradigms in Korean", *Language research*, Vol.23 No.3: 505-526. Language Education Institute, Seoul National University
- Lee, Sangbok. 1992. "A Study of word-formation ways in Korean Language", *HAN-GEUL*, 215: 51-80. The Korean Language Society.

- Lee, Seonyeong, Jeong, Huichang. 2019. "A study on Clipping and Semantic Condensation", *The Journal of Korean Studies*, 52: 269–289. Center for Korean Studies.
- Liu, Chunping. 2013. "A Study on the Korean words of '[Sino-Korean]—hada'", Doctoral thesis of Inha University.
- Lee, Eunsup. 2007. "On the morphological identity of reduction forms", *Morphology*, 9–1: 93–113. Morphology.
- Nam, Kitak. 2013. "Korean word-formation processes and reanalysis", *Journal of Korean Language and Literature*, 163: 5–38. The Society of Korean Language and Literature
- Noh, Myunghee. 2005. *A Study on Modern Sino-Korean Word*. Thaehaksa.
- Noh, Myunghee. 2010. "A study on the formation of blends in Korean", *Journal of Korean Linguistics*, 58: 255–281. The Society of Korean Linguistics.
- Noh, Myunghee. 2020. "Morphological reanalysis and Semantic reanalysis in Korean", *Journal of Korean Linguistics*, 95: 33–64. The Society of Korean Linguistics.
- Park, Jinho. 2007. "About the phenomenon of concentration of meaning", *Korean History Study and Data*: 211–224. Thaehaksa.
- Park, Jinho. 2015. "Contagion in Language", *Korean Journal of Linguistics*, 40–4: 619–632. The Linguistic Society of Korea.
- Shim, Jaekee. 1987. "The structure of Sino-Korean and its capacity of word formation", *Journal of Kugeosaenghwal*, 8: 25–39. Center for Korean Linguistic Study.
- Song, Cheoleui. 1992. *A study on the Formation of Derivatives in Korean language*. Thaehaksa.
- Yi, Sunwoong. 2000. "On Sino-Korean 'Adnominal Noun'", *Han'guk Munhwa: Korean Culture*, 26: 35–58. Kyujanggak Institute for Korean Studies Seoul National University
- Yoo, Hyunkyung. 1998. *A Study on Korean adjectives*. Hankook Publishing House.
- Zhang, Na. 2015. "A Study of the adjectives with Chino-Korean roots in Modern Korean", Doctoral thesis of Inha University.